



#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나이로비」까지

(가톨릭의대 부교수  
성모병원 산부인과 과장)

金 丞 兆

## 첫 到着地...「알젠티」

74년 11월 2일 「알젠티」의 「브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8차 國際不妊學會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필자가 혼자 出國次 金浦공항에 나와보니 일행이 없는 것이 다소 외롭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붓한(?) 재미가 있는 것도 같아 왓스레 흥분되기도 했다.

말만 듣던 KAL의 「점보」機를 탑승했는데 「로스앤젤레스」까지 直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하늘을 날으는 그 기분은 자못 뿌듯한 것이었다. 機體內에서 「어나운스」하는 「스튜어디스」의 목소리도 韓國語로 하는데다 70%가 美國人이 타고 있어 우리 나라의 국력신장을 과시하는 좋은 본보기를 본것 같아 기분이 좋을 수 밖에 없었다.

도중에 「하와이」에 잠시 기착했었는데 공항에는 韓國세관원과 KAL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5년전에 와 보았던 그때의 인상과는 천지차이가 있어 韓國의 입장이 크게 부상된 것을 實感할수가 있었다.

다아는 이야기지만 「로스앤젤레스」에는 韓國교포가 많이 살고있어 이곳에서도 韓國과 비슷한 여러가지를 볼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KAL에서 최대한으로 여행알선을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아무런 불편이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게된 것은 이만 저만한 혜택이 아닐 것이다. 「뉴욕」에서 2일을 지냈는데 이곳에도 예외없이 物價高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알젠티」行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나갔는데 出發 20分前에 도착하여 「이코노믹 클래스」의 「티켓」을 가진 내 좌석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一等席의 자리를 할당받았는데 승무원들의 대우가 이만저만 좋은 것이 아니어서 최고급 VIP대우로 극진한(?) 귀빈대우를 받으며 「브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한 것이 5일 오전. 이날 오후 2시 50분에 학회가 개막되었는데 이번 學會의 특징은 「알젠티」의 복잡한 政情때문에 美國대표단이 대거 참석하지 않은데다 「베르만」교수를 비롯한 회장단의 정치적 입김이 거센 것이었다.

學會가 끝난 날 저녁에 金東成대사의 초청으로 시내 관광도하고 한국대사관 직원들과 환담을 나누었는데 이곳에 移民을 온 우리나라 교포들은 生活力이 강하고 意志力이 높아 가장 우수한 生活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곳까지 온김에 이들을 위로할길이 없느냐고 金대사에게 말하자 『김박사의 환자진료시간이 할애되면 좋겠다』고 제의하여 쾌히 승낙했다.

교민 회장의 알선으로 환자를 진료했는데 부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이 편물에 관심을 두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여성 생식기의 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것은 이곳에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교민들이 자리를 잘 닦아놓아 이곳으로 移民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여건을 갖고 살수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보는 海外, 특히 南美에의 移民이 상당

히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韓國인들의 악착같은 生活力이 이곳에서 좋은 본보기로 되고 있어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신만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은 얼마든지 충분한 능력을 개발할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 南에서 아프리카로

「리오데자네이로」에서 11월 11일 南阿航空(SA-A) 점보기에 탑승 남극해를 가로지르는 15시간의 장쾌한 海上항공은 말로만 듣던 南極海洋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잊을수 없는 꿈의 비행이었다.

대형점보기에 탑승한 승객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관광하는 관광객인데다 東洋人이라고는 1~2명 정도밖에 없어 다소 고독감을 느끼긴 했으나 처음으로 횡단하는 이 지역이라 「드릴」을 느낄수가 있었다.

장장 15시간의 비행에 녹초가 되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눈떠보니 아침이었다. 이곳이 바로 유명한 南阿「케이프타운」. 문득 남아프리카의 독특한 냄새가 풍기면서 처음 발을 딛어본 이곳이 우리나라와는 엄청난 거리에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새삼 이 지구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곳에서 1시간 30분간 북상비행,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는데 필자의 여행자인 「케냐」에 入國해야 되는데 「비자」가 없는게 아닌가. 남아프리카와 「케냐」와는 묘하게 서로가 적대시하는 나라여서 「요하네스버그」에서 「케냐」쪽과 外交上の 접촉이 사실상 끊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았다. 따라서 「나이로비」에서 4~5일 머무를 예정이었던 것이 차질이 올것같아 조마조마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나이로비」 保健省을 통한 外交「채널」을 이용하기로 작정하고 필자의 초청장을 갖고 정식입국을 요청했다.

「나이로비」에 묵으면서 그곳의 거리를 散策했는데 거리는 먼지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市民들은 상당히 고급생활을 하고 있었다. 「요하네스버그」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좋았는데 우리가 묵었던 호텔은 外國觀光客을 위한 각종 설비를

해 놓고 투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처하고 있었다.

「나이로비」는 인구 31만 4천 여명이 거주하는 「케냐」 共和國의 수도인데 연평균 기온은 섭씨 18도여서 신선한 健康地로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는 최근 鑛脈의 產地로 全世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나이로비」는 「東아프리카」 공동서비스기구(EACSO) 본부가 있어 경제 경제 군사 사회 문화등의 명실상부한 中心地로 군림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도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트랜스발」州 西南方に 있는 상공업도시로 특히 「요하네스버그」 醫大는 高度의 의료기구를 도입한 현대식병원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요하네스버그」 醫大 病院의 운영상태를 설명했는데 이곳은 醫療保險制度가 잘 되어있는 곳이며 진료상의 애로가 조금도 없을뿐만 아니라 醫師들이 모두 「폴리·클리닉」 형식의 제도에 속해있어 공동「오픈」의 이상적인 취업을 하고 있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느낀 것은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英國비행사의 銅像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것인데 1932년에 「런던」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남아프리카로 내려와 「케이프타운」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남아프리카의 開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요하네스버그」가 개발되고 그후 각종 鑛脈이 발견되어 오늘의 부자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프리카 地域은 人種問題가 없다면 樂園일텐데 이곳에서 판치는 나라 사람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폴란드계열 인종인데 대개 흑인들 특히 本土人하고는 잘 어울리지않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日本이나 中國계열의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왔는데 韓國人은 극히 드물어 醫師들의 이쪽으로의 진출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 「요하네스버그」에서

여행을 하다보면 뜻밖의 사태를 만난다는 것은

단단히 각오한 것이지만 막상 「아프리카」 最南端 「요하네스버그」에서 「비자」 관계로 받아 묶이고 나서 서울을 생각하니 아득한 생각이 엄습해 왔다.

韓國人은 고사하고 東洋人이라고는 사방 어느 곳을 둘러봐야 찾아볼 수가 없다. 흑인 原住民과 남자들도 짧은 바지와 「스커트」를 입은 출입국관리들이 한가롭게 공항주변을 거닐고 있는 것을 보니 여유가 있는 것 같았다.

공항이름이 「잔·스마트」라고 하는 곳인데 공항시설은 완전 초현대식인데 「에스카레이터」와 식당, 그리고 승객들의 짐받는 곳들이 미국 뉴욕의 「케네디」 공항보다도 더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다. 공항 「로비」에는 1920년에 「런던」에서 「케이프타운」에 비행한 비행기와 비행기 모델이 펍 인상적이었다.

필자가 이 세상에 나기전의 모형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잔·스마트」 공항에서 「요하네스버그」 市內로 들어 갈때는 이미 해가 西山을 넘어가는 석양무렵이었다. 남극에 가까운 이곳 「아프리카」 남단의 석양도 역시 따져보면 뜨고지는 해는 같겠지만 같길이면 나그네에게는 야릇함 감회를 주고 있다. 초저녁 「하이웨이」 길옆으로 줄지어 서 있는 마을들, 방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그밑에 둘러 앉아있는 식구들의 저녁식사 광경은 평화스러웠다.

시내 언덕바지에 높게 서 있는 「무랑루주」 호텔은 아담한 호텔이었는데 「스튜어디스」들이 묵는 곳이라고 예약을 해준 이 호텔의 하루 숙박료는 아침식사를 포함해서 12달러 정도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파리」에서 이만한 호텔이면 30~40달러는 지불해야 할 것이다.

「스튜어디스」들이 묵는 호텔답게 아담하고 마음에 꼭 들었다. 쿿구멍만한 호텔 「바」에는 갖가지 맥주와 「스카치」를 마시며 투숙객들끼리 民謠와 「팝송」을 가수를 중심으로 밤늦게까지 부르는 정취는 잊을수가 없었다.

인구 1백 20만명 정도의 아담한 완전 西歐式都市인 이곳에는 醫科大學이 하나 있고 규모는 크지않지만 산부인과 병원인 Womens Lying Ho-

spital도 따로 세워져 있고 양노원겸 병원이 같은 언덕바지에 서 있으며 그 뒤에는 감옥이 자리 잡고 있는것이 이상한 「뉴앙스」를 불러 일으켜 주고 있다.

의사들은 시내한복판 20여층의 단일건물전체를 「폴리 클리닉」으로 쓰고 있으며 각과별로 개인사 무실을 갖고있는 醫師들은 수입도 좋은 모양이었다. 醫療制度는 英國式 보험제도이며 경제적으로는 美國의 달러보다 더 強勢인 점이 말해 주듯 안정되고 있는 이곳 백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다.

불란서 할아버지와 홀랜드할머니를 가졌다는 「마인레치」란 마음씨좋은 중년부인은 자기를 남 「아프리카」인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 한다. 유럽 각지방에서 이민해 와서 白人끼리만 피를 섞어온 이들에게 이 곳이 조국인 것이다. 몇대를 살아온 이들에게 이 곳말고는 더 좋은 곳이 없다고 한다. 같은 白人혼혈나라인 「알제틴」이 퇴색해가는 과거의 나라라면 이곳은 현재 번영하는 나라였다.

英國대사관은 「나이로비」 입국비자를, 필자의 신분이 확인되었는지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것을 2시간만에 내주었다. 「케냐」 보건성에서 보낸 초청장의 보람도 있겠지만 후한 대접을 해주었다.

대한민국의 「패스포트」는 그곳 대사관직원에게도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지 몇번이고 자꾸 쳐다보는데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는 이곳에서 필자는 혼자만이 보호할 수 밖에 없다는 긴장감을 문득 느끼며 異邦人의 쓰라림에 한결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었다.

### 「케냐」의 觀光地 「나이로비」

밤 12시가 가까와서야 「나이로비」 비행장에 도착했다. 「요하네스버그」에 비하면 공항풍경이 너무 어둡고 비행기의 이착륙도 뜸하다.

멀리 둘러싸인 숲에서는 야생의 맹수들이 뛰어 나올 것 같은 환상을 갖게한다.

필자가 벌써 여러 비행장을 내리고 떠나봤지만 VIP실로 직접 들어가서 짐이고 「패스포트」를 「후리패스」해 본 곳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대사관의李大령과 그곳에 가 있는 우리 대학의과 김찬희박사가 마중나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뭐 대단한(?) 교수가 온답시고 미리 손을 써 놓은 모양이었다. 이렇게해서 기대이상으로 뜻밖에도 편안히 입국할 수가 있었다.

地球의 거의 兩極에서 서로 만난 엽전들(?) 끼리의 이야기는 밤을 의식할 수가 없었다.

옛날 英國植民時代의 영국의 病院長이 살고 있었다는 관사는 울타리는 없지만 문이나 창에 철망을 튼튼히 쳐 놓았다. 짐승이나 黑人들의 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보였다.

강한 햇살과 말아보지 못했던 이름모를 꽃향기에 눈을 뜬 것이 9시나 가까와서였을 것이다. 부랴부랴 일어나서 집주위를 돌았다. 「아프리카」 정글을 실제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저기에 현대식 양육저택들이 있고 까만색의 주부가 빨래를 널고 있었으며 역시 까만색의 신사아저씨가 자가용 「폭스바겐」 車를 몰고 출근 길에 나서고 있었다.

「나이로비」市에서 약 15분 「드라이브」길에 있는 「잠비아」 마을의 아침 풍경이 그럴듯하였다. 발길을 돌려 한국의 판자촌같이 모여있는 곳에 가 보았다. 동네로 한참을 걸어가기 맨발의 흑인들이 뒤라고 지껄이면서 몇명이 달려오는 것이었다. 잘되었다고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언제 모여들었는지 내 주위에 수십명의 아이들이 달려와 전을 치는게 아닌가.

겉이 난 필자는 순간 당황했다. 아이들이 달려온 것은 자기들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지금와 뒤져보니 그 아이들의 표정이 가장 아프리카적인 기쁨으로 생각되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시원한 기후, 춘하추동이 강렬한 太陽아래 오만가지 식물과 꽃들이 피며 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 저기에 자연적인 관광지가 많이 있다. 東쪽으로 바다에 연한곳에 고기잡이를 겸한 관광지가 있어 유럽등지에서 모여들고 있다.

「나이로비」市內에서 20~30분 거리에는 입구와 자동차길로 몇백리에 걸쳐 자연동물이 놀고 있었다. 이곳 국립동물원에는 內國人에게는 열가

로 받으면서 外國人관 광객에는 비싼 입장료를 받고있다. 자동차 안에서만 볼 수 있고 차밖으로는 내리지 못하게하고 있는데 이 동물원에는 재수가 있어야 사자가족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흔한 동물이 원숭이와 사슴 노루 엽소등이고 「기브라」와 기린도 자주 볼수 있는 동물들이었다. 高山地帶에서 식물들의 잎사귀가 고사리같은 잎을 하고 있었다. 넓디넓은 언덕과 들만에 자유로이 몇마리씩 떼지어 다니는 草食動物들이 오히려 너무 자유로워 不安해 보이기조차 했다. 여기 저기에 얼룩말이며 들소들의 해골들이 보였다. 완전히 적자 생존의 法則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어서 그런지 죽어 넘어진 시체와 해골을 볼 때 처절한 광경은 긴장감마저 갖게해 주는 것이었다.

사슴같은 초식동물을 볼때에는 무엇인가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 「나이로비」 관광에서 「플라밍고」(홍학)의 자연서식처인 「누꾸라」 국립공원을 빼놓수가 없다. 하루는 「키암부」에서 3백리쯤 떨어진 「홍학공원」엘 가 보았다.

수천 수만마리의 홍학떼들이 떼를 지어 나르고 앉는 광경은平生잊지 못할 광경중의 하나였다. 이들 자연서식조류들의 보금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경적소리를 내어도 안되고 보는것도 우리나라 싸릿문같은 것으로 길게 뻗은길을 따라 흡사 「토치카」 모양의 초가집창문을 통해서 몰래 들여다 보게하고 있었다. 호수주위에는 원숭이며 말만한 사슴떼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나이로비」에서 「누꾸라」 공원까지는 왕복 6시간 정도가 걸린다. 그 중간 길에는 지질적으로 몇십리 거리의 땅이 전체적으로 푹 내려앉은 「리프트」 계곡이 있어 이곳은 천연적으로 목축에 적당한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대단위의 소목장이 있고 기차 「레일」도 가끔씩 보인다.

서부영화의 「텍사스」를 방불케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강력한 태양열에 비해 비가 적은 것 같아 차에 있는데도 웬히 목이 말라온다.

「리프트」 계곡과 「누꾸라」 사이에는 「나바시 아」 다방이 있어서 아름드리 나무와 넓고넓은 잔디, 그리고 넓은 호수에는 여러형의 「모터보트」

와 「요트」가 떠 있었다.

한참 두다리를 뻗고 잔디위를 아이들과 같이 덩굴어 본다. 어쨌든 시원하다. 숨도 깊이 쉬어 보았다. 이곳에도 판치고 있는 것은 白人관광객이었다. 「나이로비」醫大부속병원 입구에는 필자에게 큰 충격을 준 안내판이 있었다.

영어로 써 놓은 안내문에는 진료시간과 모든 치료 진찰료가 무료라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의 의료제도를 배워와야 할 판이다. 어느 모로보나 이 나라에서 배워오고 싶지 않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있다.

기초교실과 임상편의 시설을 둘러 보았을때 아담한 美國의 3류 의과대학 정도의 내용을 갖춘것 같았다.

이곳 대학에는 日本醫療陣들이 인공신장기등의 기계를 기증하고 와 있었고 한국의사들도 외부파견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케냐」에는 세계 각국의 정치외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醫療陣의 진출도 경쟁적인 것 같았다.

어쨌든 찌는 듯한 태양열도 그늘에만 들어서면

시원한 기후와 곳곳의 커피와 홍차재배지에는 현대식 급수장치로 몇시간 간격으로 급수를 하고있어 알맞은 기후와 자연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은 우울하게 보였다. 같은 흑인이지만 미국 흑인들에 비해 몸체들이 허약했다.

「켄야타」대통령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정치적 독립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불안한 느낌이 보였다. 남이 이룩해 놓은 집과 도시 그리고 일류급 관광지에서 뭔가 어울리지 않는 주인들.

적산가옥에 들어선 해방당시의 우리 민족과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됐다. 들어 갈때와는 달리 떠나올 때에는 짐때문에 공항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역시 뭔가 모든 면에서 미숙하고 당황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이상의 자존심, 그리고 너무나 순진함이 뒤섞여 있었다.

『神이여 이들에게 완전한 독립을!』하고 기원했다.

醫學史에 빛날 醫聖

베살리우스

—現代 解剖의 創始者—

Andreas Vesalius

不過 17歲의 (1531) 少年이 빠리大學에 進學키 위해 出生地인 Brussels를 떠났다. 醫師가 되기 爲해 빠리로 간 그는 Sylvius 밑에서 修學하였다.

Sylvius는 Galen의 絶對的 追從者였는데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强要하였다.

個性이 강한 Vesalius는 그것이 맘에 들지 않았고 자신이 스스로 眞理 探求를 위해 나설 것을 決心하였다. 그는 우선 人體의 精確한 生김새에 큰 관심을 갖고 자기 一生의 研究 과제로 삼았다.

大先輩인 Galen에게서 배울점을 배우는 것은 좋으나, 盲從은 發展을 저지한다는 것이 信念이었던 것이다.

絞首 當한 罪囚屍體로 研究

絞首 當한 罪囚의 屍體를 얻은 (그것은 새가 몸을 쪼아서 뼈대와 靱帶(ligament)만 남은 흉칙한 屍體였다.)

그는 무서움도 없이 그것을 가지고 研究해서 지식을 확고히 했다.

22歲에 Italy의 Padua의 책임자가 그를 그 大學에 초청해서 5년간 일했다. 나이 30歲에 그는 이때까지의 傳統的 醫學知識에 革新을 가할만큼 새로운 解剖著書인 “Do Humanj Corporis Fabrica” <人體의 構造>를 發刊했다. 親舊들은 말렸으나 信念에 불타는 그는 刊行을 斷行한 結果 맹렬한 반대와 조소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現代 解剖學의 眞짜 시초였던 것이니 지금도 醫學徒들에게 읽히고 있다.